

롯데쇼핑, 동네상권 야금야금 잠식 상공인들 “유통왜곡” 반발 확산

빅마트에 불법간판 내걸고 영업... 남구청 철거 명령

최근 광주의 향토유통기업인 빅마트의 본점 등 3개 점포 내 지하식품매장을 롯데쇼핑이 장기임대방식으로 확장한 것과 관련 지역 내에서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상권이 형성된 기존 매장의 장기임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도덕하고 관법으로 유통 독과점 체제를 구축했다며 “대기업의 전면적인 동네상권 진출은 광주지역 경제의 왜곡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특정 기업의 유통 독과점은 지역경제 독점으로 왜곡되고 상생협력은 커녕 지역상권의 몰락을 가져와 그 피해가 소비자와 납품업체, 상인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도 추후 전국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롯데쇼핑의 ‘장기임대방식 매장 확장’과 관련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의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 확장을 간과한다면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아직 내부 협의과정에 남아있어 구체적인 의견 표명은 뒤로 미루지만, 이번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조합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점인 빅시터를 장기임대방식으로 영업을 착수하면서 남구청에 신고도 없이 간판을 내걸었다가, 21일 남구청으로부터 철거이행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육외광고물 설치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간판의 부착 상태도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23일까지 불법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00여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 19일 빅마트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인당 GNI 38년새 243배 늘었다

(국민총소득)

韓銀 새 통계기준 적용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970년 이후 38년새 243배로 증가하는 등 경제가 급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1일 새 국민계정 통계 기준에 맞춰 과거 1970~1999년의 통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하고 추계 방식도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했다. 2000~2008년 통계를 이미 지난 3월 새 기준에 따라 개편했다. 새로 바뀐 통계기준으로 2008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천30조6천363억원으로 1970년보다 367배 확대됐다.

1인당 GNI도 1970년 9만원에서 2008년 2천200만원으로 243배로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1970년의 GNI는 82억달러로 세계 38위였으나 2008년에는 9천347억달러로 세계 15위를 기록했으며, 1970년 1인당 GNI는 255달러(세계 119위)에서 작년 1만9천231달러(세계 52위)로 상승했다.

한편, 새 기준에 따른 2005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865조2천409억원으로 종전 기준보다 6.8% 증가했으며 2000년 GDP는 603조2천360억원으로 4.2% 늘었다.



1970년의 GDP는 종전보다 0.4% 늘었고 1980년과 1990년 GDP는 각각 0.9%와 2.5% 증가했다.

1971~1999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은 8.4%로 종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1970년대에는 1.9%포인트 높아졌고 1980년대와 1990년대 0.9%포인트와 0.5%포인트 상승했지만 2000~2008년 연평균 성장률은 4.8%로 0.1%포인트 하락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05년 1만7천531달러로 종전보다 1천118달러 증가했으며 2000년은 1만1천292달러로 451달러 늘었다. 1970년은 255달러로 1달러 늘었으며 1980년과 1990년은 1천660달러와 6천303달러로 각각 15달러와 156달러 증가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해준다

국세청 내년 3월 10일까지... 24시간내 답변

국세청은 21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실무자에게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www.yesone.go.kr/call)과 전화로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국세청 전담 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15만명)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다.

상에 주어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 초부터 ‘110 정 부민원 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 문의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 자가동으로 계산돼 환급액을 미리 알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품단가 조정 의무제’ 유명무실

중소 28% 원자재가 올라도 납품가에 반영 못해

중소기업들이 원자재가격이 올라도 납품 가격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2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해 납품한다는 업체는 2.3%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67.7%는 가격 상승분을 일부만 반영하고 있으며,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도 27.7%나 됐다.

또 200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원자재가격은 18.9% 상승했으나 납품가격은 6.6% 인상에 그쳐 납품단가 오름폭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가 인하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치열한 납품 경쟁 때문이라는 의견이 65.8%로 가장 많았고, 납품받는 업체(원사업자)가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40%로 높게 나타났다.

납품 거래처에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62.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정부가 지난 4월부터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 사이에 대금 조정 신청 의무를 의무화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선 이 제도를 모른다는 업체가 51.1%로 과반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보해 임건우 회장 금탑산업훈장

노사 상생협력 구축 공로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상생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온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임 회장은 21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09년 노사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합동 시상식’에서 노사상생협력 부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사진>

임 회장은 지난 1978년 출범한 노동조합과 매년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해는 임금 및 단체 협약에서 31년째 무분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으로, 2004년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에서 ‘제5회 노사협력대상’을 받았다.

2006년에도 전남도로부터 ‘제3회 전라남도 산업평화상’을 수상하고 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는데는 노사협력에 관한 것”이라며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을 이어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It features a blue and white color scheme with a horse logo. Text include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and contact information: 본점 (062)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송정점 (062)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Advertisement for '장수바다장어' (Jangsu Bada Ee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hef in a white hat and a bowl of eel soup. Text includes '장수바다장어' (Jangsu Bada Eel), '100% 자연산' (100% Natural), and '100% 자연산' (100% Natural). It also includes a map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영입 매력한우' (Yongip Maerikhanu). It features a blue and green color scheme with images of cows and a farm. Text includes '영입 매력한우' (Yongip Maerikhanu), '맛있는 직판장' (Tasty Direct Sales), and contact information: 172-8330.